
**당원동지여러분, 도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정권교체의 태풍 충남도당,
충남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갑니다**

- 도당위원장 취임1주년 담화문 -

2017. 8. 18.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박 완 주**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 담화문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저를 비롯한 충남도당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충남도당과 도민의 거리는 가까웠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원동지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권교체의 태풍, 충남도당의 새로운 10년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1년 전 저는, 작렬하는 8월의 태양아래 당원동지 한분 한분의 손을 맞잡으며
충남도당을 정권교체의 태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당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가장 크고 무거운 약속이었고, 나아가 모두의 다짐이었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목도한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충남도당과 11개 지역위원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충남도민,
그리고 1,700만 촛불과 함께 엄동설한의 거리를 녹이고, 장미대선의 선봉에
섰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충남의 마음을 얻은 후보가
대선 승리를 이룬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증명되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16개 시·군·구 가운데 천안을 1곳만 승리했던 충남이,
이번 대선에서는 1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충남도당이 정권교체의 태풍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충남도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기는 충남도당, 3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충남도당은 ‘이기는 도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3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17,224명이었던 권리당원이 1년 만에 34,51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증가한 당원 중 95%가 권리당원이라는

충남도당의 놀라운 체질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단순한 당원의 증가가 아닌,

적극 지지층 확보로 당의 확고한 기반을 강화한 것입니다.

‘3만 권리당원 시대’는 충남도당의 새로운 10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시스템 정당, 당원이 주인인 도당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당은 ‘시스템 도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체계적인 도당 운영은 물론, 당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당원이 주인인 도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원칙이 살아있는 도당운영을 위해서

당헌·당규에 기반한 당무집행을 대원칙으로 삼고,

매월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는 상무위원회를 정례화해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천안을 시작으로 당진, 서산, 공주, 홍성에 이르기까지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과 토론에서 도당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당’, ‘민주적 도당’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당이 젊어지고 여성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충남도당 여성·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위원회별 조직정비를 거쳐
이제는 충남 여성·청년위원회가 충남도당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핵심 조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 또한
주기적인 간담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도당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당은 당원의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민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충남도당 도민 참여를 통한 대선 공약 개발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지난 1년 저희 충남도당은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도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공약 개발에 참여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남도당은 도민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온전히 담아 내기위해,
한 달 간의 공모와 전문가가 참여한 ‘공약개발 토론회’ ,
중앙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4개의 공약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 △ 충남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사업
- △ 충남 곳곳에 막힌 혈류를 뚫고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을 위한 SOC 사업
- △ 충남에 산재한 역사문화 유적을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 △ 미세먼지대책과 장기미해결 숙원사업 등

충남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사업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면밀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도민의 든든한 대변인 충남도당

마지막으로 충남도당은 ‘도민의 든든한 대변인’ 이 되기 위해
지역 현안 또한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호우 피해대책, 임금체불 사태, 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 등
총 19건의 논평과 5건의 성명서를 통해 도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
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남도당은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민과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충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당원동지여러분, 그리고 충남도민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이 없었다면 단연코 오늘의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충남도당은 믿음과 성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해 가겠습니다.

‘승리하는 도당’, ‘시스템 도당’,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당’,
‘도민의 대변인’을 넘는 또 다른 충남도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도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선뎌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동지여러분과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